

No.51

Japan Weekly Digest

2010. 9. 6 ~ 9. 12

□ 금주의 이슈

- 한일FTA 협상 재개를 위한 첫 국장급회의 개최
- 일본기업 23사, 차세대 전자부품 공동개발
- 한일 중소기업CEO포럼 개최
- LG CNS, 금융시스템기술 일본에 수출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간 총리·오자와 前간사장, TV 공개토론 실시
- 경단련 회장 등 히토류 수출규제 협의를 위해 중국방문
- 재무장관, 엔고 외환시장 개입 시사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- 에코카 보조금 지원 종료 발표
- 아시아 대상 의료기기 실증프로젝트 실시
- 일본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 발표
- 샤프, 세계최고 발전효율 42.1% 태양전지 개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- "일본의 對이란 경제제재"



한일경제협회
Korea-Japan Economic Association

※ 자료제공 : (재)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

※ 본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(<http://www.kje.or.kr>)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
있사오며, 본 자료를 이메일로 받기를 희망하시는 회원께서는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(Tel.02-3014-9888)

□ 금주의 이슈

- 한일FTA 협상 재개를 위한 첫 국장급회의 개최(16일, 도쿄)
 - 日외무성은 중단된 한국과의 FTA협상 재개를 위한 국장급 사전협의회를 16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
 - 국장급 사전협회가 개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, 일본은 되도록 빠른 시기에 교섭 재개할 것을 희망
 - * 일본에서는 야기 다케시 경제국장, 한국은 김해용 FTA교섭국장이 참가
 - 03년에 시작된 한일FTA협상은 04년에 중단. 농산물 시장개방문제와 무역적자 해소를 위한 산업협력에 소극적인 일본의 태도가 요인으로 작용
 - 5월29일 양국 정상회담에서 수석대표 직급을 국장급으로 격상시키기로 합의
- 일본기업 23사, 차세대 전자부품 공동개발
 - 도요타와 파나소닉 등 일본기업 23개사가 진동이나 체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차세대 전자부품을 공동 개발키로 했다고 일본 언론이 6일 보도
 - 공동 개발하는 차세대 전자부품은 가전의 리모컨이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센서, 심장박동 조율기 등 폭넓은 용도로 사용되며 2~3년 후 실용화할 계획
 - * 기기의 진동, 방열, 사람의 체온 등의 에너지를 전력으로 변환하는 기능을 가진 부품을 개발 예정
- 한일 중소기업CEO포럼 개최(9일, 서울)
 -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9일, 한국과 일본 중소기업의 협력을 모색하는 제2회 “한일 중소기업 CEO 포럼”을 개최
 - 한국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약 150여명, 일본은 츠루타 중소기업단체 중앙회 회장, 도요나가 중소기업청 차장 등 50여 명이 참가
 - 포럼에서는 ▲양국 중소기업의 현황과 과제 ▲한일 중소기업의 교류협력 ▲일본 기업의 녹색성장 ▲중소기업 단체 간 교류협력 성공사례 등 논의
- LG CNS, 금융시스템기술 일본에 수출
 - LG CNS는 7일, 日SBI생명보험의 금융시스템 구축사업 수주를 발표 (SBI생명보험은 日소프트뱅크의 금융자회사)
 - 한국 IT기업이 일본의 금융기업 IT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
 - 금융계 업무특성상, 해당분야 시스템 구축 실적이 있는 특정한 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에 있었으나, LG CNS는 일본IT기업 10개사와 경쟁, 수주에 성공했음

□ 일본 정재계 소식

- 간 총리·오자와 전 간사장, TV 공개 토론 실시
 - 간 총리와 오자와 전 간사장은 5일, 민주당 대표선거를 위한 TV 토론회 실시
 - 토론회에서 민주당이 작년 발표한 선거공약을 어느 정도까지 준수해야 할지에 대해, 간 총리와 오자와 씨의 견해 차이가 밝혀졌음
 - 오자와 씨는 낭비가 많은 지출을 삭감할 「여지가 많다」라고 강조하고, 정부의 지방자치체에 대한 보조금을 조정함으로써 공약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
 - 이에 대해 간 총리는 지방자치체 보조금 조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확신할 수 없다고 반박
 - 또한, 오자와 씨는 간 총리가 실시한 개혁은 표면적이고, 관료주도 정치로부터 개혁이 아니라고 언급하는 등 간 총리의 개혁을 전면에서 부정
- 경단련 회장 등 희토류 수출규제 협의를 위해 중국방문
 - 日경단련 요네쿠라 회장, 일중경제협회 조 후지오 회장 등, 경제계대표 160명이 5일부터 베이징을 방문, 중국 정부수뇌들과 회담
 - 중국이 도입한 희토류 수출규제나, 환경 분야 협력을 중심으로 의견 교환하고, 양국의 경제협력강화에 대해서 논의
 - 8월말 베이징에서 개최된 「일·중 하イレ벨경제대화」에서, 일본은 희토류 수출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나, 중국 측은 응하지 않았음
 - * 중국 짐 찡 상무차관은 중국 대신 호주에서 희토류를 수입할 것을 권유함
 - 기타, 한·중·일FTA의 체결, 일본계 기업에서 발생한 노사문제에 대해 의견 교환
- 日재무장관, 엔고 외환시장 개입 시사
 - 노다 재무장관은 8일, 중의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엔고 저지를 위해 “개입도 포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,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”며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을 시사
 - 그러면서도 노다 재무장관은 「국제사회와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, 그 노력을 먼저 하고 판단하겠다고」고 언급
 - 하지만 이들 금융당국자의 구두개입은 실천으로 연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시장 불안을 불식하지는 못함

□ 경제산업성 및 기업 동향

○ 에코카 보조금 지원 종료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일정한 연비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동차 구입에 대한 「에코카 보조금」 접수를 8일 종료한다고 발표
- 7일 현재 보조금예산 잔액이 10억 엔이고, 8일에는 모두 소진될 것이 확실 시되었기 때문(예정보다 약 3주정도 빨리 종료, 보조대상 자동차 453만대)
- 하루 평균 접수금액은 20억 엔 정도였으나, 보조금예산(5837억엔)이 소진되면 기한 전이라도 접수를 종료한다고 발표한 7월 이후, 신청 건수가 급증

○ 아시아 대상 의료기기 실증프로젝트 실시

- 경제산업성은 6일, 일본의 의료기기와 시스템을 아시아에서 실증하는 프로젝트를 2011년도에 시작한다고 발표
- 일본 의료기관이 현지의 의료 기관과 제휴하고, 공동으로 기기개발이나 임상 연구를 실시, 아시아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인공관절이나 현지 니즈에 입각한 원격의료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목적
- 협력국가에서 승인·인가를 얻은 후, 일본 의료산업의 해외실증을 지원할 방침

○ 「일본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」 발표

- 경제산업성은 9일, 제1회 신성장전략 실현회의에서 「일본국내 투자 촉진 프로그램(안)」을 발표
- **공장·사업소의 국내입지촉진, 본사기능의 국내입지촉진, 모노즈쿠리 기반을 지탱하는 중소기업대책**을 강력하게 전개함으로서, 국내 투자와 새로운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
 - (1)공장·사업소 국내입지촉진: 저탄소 관련 산업 국내입지와 연구개발 지원
 - (2)본사기능 국내입지촉진: 법인실효세율의 인하, 일본의 아시아거점화, 이노베이션 창출 환경정비 등 추진

○ 샤프, 세계최고 발전효율 42.1% 태양전지 개발

- 샤프는 6일, 세계최고의 발전효율을 내는 태양전지를 동경대학과 공동 개발했다고 발표
- 종래 세계 최고기록은 미국 보잉 자회사인 스펙트로랩(Spectrolab)사의 41.6%이었으나, 샤프는 이를 상회하는 42.1% 달성, 개량하면 45%까지 가능하다고 발표

□ 일본 관련 보고서 리뷰

“일본의 對이란 경제제재”

- 일본정부는 3일, 자산 동결 확대나 무역보험 제한을 담고 있는, EU의 對이란 제재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제재를 발표
- 그러나,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유에 대해서는 경제에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수입규제에서 제외함
- 핵개발을 계속하는 이란에 대해, 미국, 유럽 등의 국가와 보조를 맞추는 엄격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이란과 지속적인 대화는 병행, 핵개발을 포기하도록 제의할 방침
- 미국은 일본의 對이란 제재에 대해, 상당히 엄격한 내용이라고 평가
 - 한편, 주일 이란대사는 「일본과의 경제 관계에 큰 영향은 없다.」라고 강조하면서도, 이번 조치는 미국이 일본에 압력을 가한 결과라는 주장

□ 핵활동 관여 단체·개인에 대한 제재

- 기존에는 이란의 핵·미사일 개발에 관여하는 40단체·1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었으며, 이번에 새로이 2배 규모인 88단체, 24개인으로 확대
 - * 한국은 102단체, 24개인에 대한 자산 동결

□ 금융 분야

- 이란 금융기관과 환율거래 신규계약 체결 자숙, 국내금융기관의 이란 지점설치와 이란 금융기관의 국내지점설치 등 금지
- 송금 보고를 엄격하게 하는 등 핵·미사일 개발에 연결되는 자금 흐름을 실질적으로 차단시킬 방침

□ 무역 분야

- 중장기 이란대상 수출 신용의 신규제공·인수는 정지하고, 단기도 엄격하게 심사

□ 에너지 분야

- 신규 석유·가스 관련 투자를 중단
- 산업계에게 이란과 거래를 했을 경우, 주의 권고
- 이란의 자원개발이나 정제 능력 증강에 관한 프로젝트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도록 기업에 요청

【금주의 일본 주요 보고서】

- (1) 『세계 인프라 및 자원 비즈니스 전망』 KPMG, 9월6일
*출처: <http://www.kpmg.or.jp/resources/newsletter/financial/cf/201008/201008.pdf>
- (2) 『소재산업 비전』 경제산업성, 9월6일
*출처: http://www.meti.go.jp/policy/mono_info_service/mono/sokeizai/tuihoban%20.pdf
- (3) 『환태평양 전략적 경제연계 협정(TPP) 의의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9월7일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an81/81ishikawa.pdf>
- (4) 『신흥국기업의 일본기업에 대한 투자』 Teikoku data bank, 9월7일
*출처: <http://www.iti.or.jp/kan81/81ishikawa.pdf>
- (5) 『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산관학연계 기본전략』 문부과학성, 9월8일
*출처: http://www.mext.go.jp/component/b_menu/shingi/toushin/_icsFiles/afildfile/2010/09/07/1297355_1.pdf
- (6) 『창업100년 이상 장수기업 실태조사』 Teikoku data bank, 9월9일
*출처: <http://www.tdb.co.jp/report/watching/press/pdf/p100902.pdf>
- (7) 『중소기업의 국제 전개』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, 9월9일
*출처: http://www.smrj.go.jp/keiei/dbps_data/_material/_common/chushou/b_keiei/keieichosa/pdf/7-6shou.pdf

【금주의 일정】

일 자	주 요 일 정
9월 6일(월)	○ 8월 자동차별 판매대수 발표(자동차판매연합)
9월 7일(화)	○ 8월 외화준비고 발표(재무성) ○ 7월 경기동행지수(속보지) 발표(내각부) ○ 금융정책결정회합 결과 발표(일본은행)
9월 8일(수)	○ 7월 국제수지 발표(재무성) ○ 7월 기계수주 통계 발표(내각부)
9월 9일(목)	○ 일-인도 FTA협상 실질 합의 * 향후 10년간 무역액의 94% 관세 철폐 합의 ○ APEC 지적재산권 심포지엄 개최(경산성) ○ 8월 소비자동행 지수 발표(내각부) ○ 한일 중소기업CEO포럼 개최(서울 롯데호텔)
9월 10일(금)	○ 신성장전략실천을 위한 3단계 경제대책 발표(경산성) ○ 4~6월기 GDP개정치 발표(내각부) ○ 8월 기업물가 지수 발표(일본은행)